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만민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 중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발행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7 중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내 삶의 중심, 믿음의 기도와 신령한 예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롬 12:12)

한 영혼 구원을 위한 선교의 열기가 한여름 무더위보다 뜨겁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파송된 19개 팀이 현재 선교 중이며, 금주에는 27개 팀이 열방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의 증인들을 위해 모든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마 21:22)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무릎이 필요합니다. 자칫 무더위로 소홀해지기 쉬운 새벽기도회에 나아와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경험하십시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막 9:29)

모든 공예배에 빠짐없이 나아와 보혈의 은혜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요 4:24) 예배는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주일 예배는 성도의 일 주일 간의 삶의 절정입니다. 신령한 예배를 위해 예배 시작 15분 전에 착석하여 기도와 찬양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학을 맞은 자녀들과 함께 주일예배를 드리시기 바라며, 수요일·2부 예배에도 나오십시오. 금요찬양집회에도 자녀들과 함께 나와 복음의 은총으로 무더위를 식하십시오. 지난 27일 금요찬양집회 때부터 크리스마스 메시지 선포가 시작되었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19:10) 내 삶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기도와 신령한 예배가 계속되길 원합니다.

크리스마스 메시지①

크리스마스 선지자 (이사야 2:1~5)

가 약속한 것이 여기 이루어진다." 이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예고하는 것을 가리켜 '예언'이라 부른다. 그런데 많은 예언 중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구체적으로 예언된 것은 없다. (사 11:1,2, 42:1~4) 특히 이사야는 그 어느 선지자보다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나심과 살리고 사역을 미리 선포하고 예언하였다. 인간의 역사 속에 임하실 신적인 개입을 향한 인간의 갈급함, 간절한 심령을 흔들어 준 하나님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였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오시도록 준비된 구원의 역사적인 배경이다.

'이사야'란 이름에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사야를 가리켜 '크리스마스 선지자'라고 부른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장 많은 것을 선포하였다. 주 765년경, 이사야는 2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소명을 받았다. (사 6:6~8) 하나님의 일꾼이 된 선지자들에게는 목이 곧은 백성, 멸망 당할까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려는 이사야의 결심에 힘을 불어넣어 주셨다. (사 6:10,13) 이사야는 50여 년 동안 유다와 예루살렘 지경의 남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선포하였다. 그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세 왕을 섬기는 선지자였다. 따라서 이사야서를 읽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전하여 주는 이사야를 발견할 수 있다. (사 2:3,4)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삶의 배경이 있다. 이사야 역시 그가 살던 시대적 배경은 그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 메시지 안에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다윗과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왕국으로서의 영광이 사라지고 있었다. (대하 7:1~3)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왕으로 최고의 명예와 부와 영광을 누렸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두 번씩이나 나타나 경고하였다. (왕상 11:9,10) 그러나 소용이 없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마음은 쇠었고 그의 마음은 자존심과 교만으로 가득했다. 결국 왕국은 분열되었다. 이제 이스라엘은 잔인한 앗수르로부터 위협을 당하게 되었다. 앗수르의 만행이 있던 당시,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사 14:24~27, 2:6~9) 이사야는 여호와께로 돌아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와 빛에 행하고자 한다. (사 2:5)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사야의 호소에 어떻게 응답하였는가? 단절된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앗수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은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 군사적인 동맹을 맺었다. 이들은 심지어 애굽의 바로에게 순복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 (사 30:1~3) 이스라엘 족속들은 은총의 과거를 무시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취하는 자들이 되었다. (수 8:33~35) 이것이 역사가 증명해 주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당시 모습이었다.

이사야는 "너희를 종으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바로의 애굽을 의지한다면 그들은 너희를 나무토막을 쪼개듯 켜를 것이며, 참혹하게 켜를 것이다."라고 전했다. (갈 4:8~11) 그는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 한 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삶을 살도록 간청하며 외쳤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거부하였다. 이후에 이사야가 행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그는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께서 두 아들의 이름을 "마헬살람하스바스"(부끄러움이 눈앞에 있다.)와 "스알야숨"(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으로 정하였다. (사 8:3, 7:3,4)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을 앗수르를 통하여 심판하실 것과 이스라엘이 진실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두 아들의 이름을 빚대어 예언하신 것이다.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다. (사 7:14, 9:2) 이사야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기로 태어나셨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 크리스마스 선지자 이사야는 이제 장차 심판 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 이 은총의 부르심에 오직 믿음으로만 반응하자. 아멘.

8월 교회 일정

- 8월(수) 총력 교회주변 전도(수요일 예배 후, 여전도회)
선교위원회의 헌신예배(수요일 2부 예배 시)
정기당회(수요일 2부 예배 후)
- 10월(금) 중등1부 수련회(11월까지)
- 11월(토) 총력 교회주변 전도(오후 2시, 남전도회)
- 17월(금) 중등3부 수련회(18월까지)
- 26월(주) 제4차 학습·세례식(찬양예배 시)

I AM THE LORD YOUR GOD

⁽²⁾God spoke further to Moses and said to him, **"I am the LORD; ⁽³⁾and I appeared to Abraham, Isaac, and Jacob, as God Almighty, but by My name, LORD, I did not make Myself known to them.**
 ... ⁽⁹⁾So Moses spoke thus to the sons of Israel, but they did not listen to Moses on account of their despondency and cruel bondage. (Exodus 6:2~9)

God made Himself known to Abraham, Isaac, and Jacob by the name God Almighty, but not by the name Lord. He hid this name from them, but revealed it to Moses just prior to the Exodus. The name Lord means master, and God wanted His people to know that He is the Lord God. He is the God who takes care of everything. The patriarchs experienced difficult times, but not the kind of suffering that the sons of Israel underwent in Egypt. Like the sons of Israel, God wants you to know that He is the Lord your God. What does it mean to know God as Lord?

When you know God as Lord, you know that He brings you out from under your burdens. He told the sons of Israel, "I am the Lord, and I will bring you out from under the burdens of the Egyptians..." (v. 6) Our Lord knows everything about us. He knows how much we can and cannot endure. He knows all our burdens. He is the only One who can bring us out from any burden, which is why He is the Lord God. He knows when we need Him, and the exact time that we need Him. All we have to do is ask Him. David prayed to the Lord, "Out of the depths I have cried to You, O Lord. Lord, hear my voice! Let Your ears be attentive To the voice of my supplications." (Ps. 130:1&2) David knew God as Lord, and from that knowledge the Lord God saved him. Pharaoh had the foremen of the sons of Israel beaten because they could not keep their quota for making bricks, even though he withdrew the straw they needed to do it. (Ex. 5:10~13) Their heavy burdens were caused by their desire to sacrifice to God. Their burdens were very important to God, just like your burdens are very important to God. Jesus always named His burdens before God's throne, "In the days of His flesh, He offered up both prayers and supplications with loud crying and tears to the One able to save Him from death, and He was heard because of His piety." (Heb. 5:7) God's grace comes when we come in our time of need, "Therefore let us draw near with confidence to the throne of grace, so that we may receive mercy and find grace to help in time of need." (Heb. 4:16)

When you know God as Lord, you know that He delivers you from bondage. He told the sons of Israel, "I am the Lord, ... I will deliver you from their bondage." (v. 6) Unlike burdens, which are stressful or difficult responsibilities, bondage is the condition of being enslaved or of being controlled by something or someone that limits freedom. Examples of bondages would be addictions, slavery, fears, desires, etc. Who or what controls you? If you believe that God is your Lord, He will deliver you from your bondage. The Israelites cried out, knowing that no one could help them, but God told them; "I am the Lord." (v. 2) The Egyptians treated them harshly and afflicted them, and imposed hard labor on them, and they cried to the Lord, and the Lord heard their voices and saw their affliction, toil, and oppression and delivered them out of Egypt. (Deut. 26:6~8) If you are under the bondage of sin, please call on the Lord and He will save you.

When you know God as Lord, you know that He gives you freedom. He redeems you! He told the Israelites, "I will also redeem you with an outstretched arm and with great judgments." (v. 6) The Passover lamb

set them free. Have we been redeemed by money? Have we been redeemed by our own efforts? Christians are redeemed by the blood of Jesus, "knowing that you were not redeemed with perishable things like silver or gold from your futile way of life inherited from your forefathers, but with precious blood, as of a lamb unblemished and spotless, the blood of Christ." (1 Pet. 1:18&19) John 8:32 says, "and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make you free." The truth is the Word of God, Jesus Christ, "So if the Son makes you free, you will be free indeed." (Jn. 8:36) Most definitely, God is Lord, "Now the Lord is the Spirit, and where the Spirit of the Lord is, there is liberty." (2 Cor. 3:17)

When you know God as Lord, you know that He will be your God. He told the Israelites, "Then I will take you for My people, and I will be your God; and you shall know that I am the Lord your God, who brought you out from under the burdens of the Egyptians." (v. 7) God cares about relationships. He wants to fellowship with you. He wants you to become His child. Through faith, He enters your heart. Look at His wonderful care over Israel. His physical and spiritual presence was with them night and day. He provided for their every need. They had fellowship with Him everyday. God wants to fellowship with you. He will be your God, and He will give you assurance of His presence. He will guide you night and day, and provide for all your needs. Deuteronomy 4:39 says, "Know therefore today, and take it to your heart, that the Lord, He is God in heaven above and on the earth below; there is no other." Do you believe it?

When you know God as Lord, you know He promises you a wonderful future. He said to the Israelites, "I will bring you to the land which I swore to give to Abraham, Isaac, and Jacob, and I will give it to you for a possession; I am the Lord." (v. 8) God keeps His promises, "Commit your way to the Lord, Trust also in Him, and He will do it." (Ps. 37:5) Caleb and his descendants entered the Promised Land, "But My servant Caleb, because he has had a different spirit and has followed Me fully, I will bring into the land which he entered, and his descendants shall take possession of it." (Num. 14:24) God's promise for your future is to obtain "an inheritance which is imperishable and undefiled and will not fade away, reserved in heaven for you" (1 Pet. 1:4) Isn't that a good promise for the future? Your future is in heaven. (Col. 1:5) Psalm 37:7 reminds us, "Rest in the Lord and wait patiently for Him; Do not fret because of him who prospers in his way, Because of the man who carries out wicked schemes." The wicked will perish, but God's people will live eternally with Him in heaven.

My dear friend, the Lord God is calling, "Come to Me, all who are weary and heavy-laden, and I will give you rest." (Mt. 11:28) Jesus is the Lord God. He will take away your burdens and your bondages, just as He did for the Israelites. He will give you freedom, a lasting relationship with Himself, and a wonderful future. Do not put off His invitation to come to Him. Do not stress and worry about things you have no control over. Jesus is the answer. He is the Lord your God. Do you hear or are you just sleeping? 🙏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²⁾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³⁾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⁹⁾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흑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출애굽기 6:2~9)



김성만 목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여호와로서가 아니라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게 이 이름을 감추셨던 하나님은 출애굽하기 바로 직전 모세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드러내셨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을 역시 어려운 일들을 겪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당했던 고통과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랬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리라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 때 그분이 우리를 무거운 짐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 주실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리라..."(6절) 우리의 주님은 우리에게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짐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모든 짐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필요로 하는 그 정확한 시간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시 130:1,2) 다윗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당된 벽돌의 수효를 채우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그들을 때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벽돌을 만드는데 필요한 짚을 주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출 5:10~13) 그들의 짚이 이렇게 무거워진 것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자 했던 그들의 간절한 소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짐은 하나님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짐도 하나님께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자신의 짐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낱알이 아꼈었습니다. "그는 육체에 게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히 5:7)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나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 4:16)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리라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 때 그분이 우리를 고역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리라"(6절) 스트레스와 무거운 책임감으로 인한 짐과는 달리 고역은 종이 된 상태 또는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의해 지배당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고역의 좋은 예로 종독, 노예, 두려움, 욕망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의 여호와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묶고 있는 고역에서 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도 그들을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로라"(2절) 애굽 사람들을 그들을 학대하며 괴롭혔지만 아니라 더욱더 심한 노동을 부가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호소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수고와 압박을 보셨고 마침내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신 26:6~8) 만약 여러분이 죄의 속박에 얽매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큰 재앙에서 너희를 구속하여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 때 그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은 여러분을 구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편 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6절) 유월절 어린 양이 그들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우리를 구속한 것이 돈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의 노력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되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벧전 1:18,19) 요한복음 8:32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요 8:36)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은 매우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후 3:17)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 때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찌라"(7절) 하나님은 관계 회복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들어오십니다.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십시오. 그분의 실제적이고 영적인 현존이 밤낮으로 그들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과의 교제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하나님이 되시며, 그분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밤낮으로 인도해 주시며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4:39은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오늘날 상전 하직에 오직 여호와와 하나님을 사모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습니까?

너희를 인도하고 기업을 삼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 때 그분이 우리에게 놀라운 미래를 약속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8절)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시 37:5) 갈렙과 그의 자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그의 값된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이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민 14:24)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찍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입니다.(벧전 1:4) 이것이야말로 미래에 대한 가장 복된 약속이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하늘에 있습니다.(골 1:5) 시편 37:7은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성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멸망하여 말지어다" 악한 자들은 번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께 짐과 고역을 제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께 자유와 하나님의 지속적인 교제, 그리고 놀라운 미래를 허락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라는 그분의 초대를 지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 대답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영혼의 잠을 자고 있습니까? ■

수요1부 예배 메시지 (2007. 7. 25.)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요한일서 2:6)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육과 선교에 참여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이 삶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매우 간단 명료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요일 2:6) 먼저 우리 자신의 상태를 살펴보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는가?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수 없다. 현실의 무게에 힘들어 무의미하게 사는 삶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듭남에서부터 시작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보혈로 거듭나야 한다. 보혈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 우리는 매번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환경을 탓한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환경을 보시지 않는다. 주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 삶이다. 우리 삶이 어떠한가? 그리스도께 모든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가? “나의 자녀들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씌는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라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요일 2:1)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자존심과 고만이 우리로 하여금 유일한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당대 최고의 학식과 인품을 가졌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 3:3) 보혈로 거듭난 은총의 자녀만이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요 3:15,16) 따라서 거듭나면 모든 매듭은 풀린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듭남에서부터 시작한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고백하고 믿어야 한다.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골 10:9)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의 모습이 다. 무엇보다도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증인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이어진다.

자기도 행할지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동행하며 진보한다. ‘행한다’는 것은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보혈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다. 따라서 이 삶은 말씀과 삶이 일치한다. (롬 13:13) 성령을 좇아 행한다. (갈 5:16) 화려한 세상 부귀와 영화를 좇지 않고 말과 마음에 누운 신 예수님께 모든 시선을 맞춘다.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겠으셨던 좁고 험한 길을 따르는 삶이며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써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엡 5:2) 이 삶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엡 5:15) 세상에 섞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이기는 삶이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좇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좇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골 1:23) 특히 이 행함의 기초는 믿음이다. 자신이 완악한 죄인임을 매순간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다. 겸손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자. 겸손히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보혈의 은총으로 진보하는 삶이다.

그의 행하시는 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른다. 죄인들을 온전케 하실 믿음의 창시자 예수님만을 바라보자. (히 12:2) 그분이 걸으셨던

고난으로 가득찬 좁은 십자가의 길을 걷자. 예수님은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땀과 눈물은 말과 구에서 태어나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셨다. (빌 2:6~8) 결국 이같은 그리스도의 삶은 죄인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선물하셨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대로 살아야 한다.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분의 삶이지만 믿음으로 따르자.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순종하자.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고 십자가 사랑의 향기를 내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다.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타협하게 만든다. 사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우리를 미혹한다. 그런데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고 있는 악한 영들에 대적하여 싸울 만한 힘이, 우리에게는 조금도 없다. 따라서 우리의 고백은 이것이 되어야 한다. “나는 죄인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여 보혈로 충만하자.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진보하며 그리스도께 행하신 대로 순종하자. 이제 곧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요일 3:2) 그 때까지!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자.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마시다.”(찬 359장) 아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11교구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전 1:29)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크신과 높으신, 측량 못할 예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총이 드러남에 감사를 드립니다. 11교구는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의정부, 포천, 동두천, 양주, 철원 등 서울북부 지역과 경기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336세대, 755명의 성도와 7개 지역과 29개 구역으로 나누어 섬기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상 가구 밀집도는 떨어지지만 이러한 환경은 오히려 주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며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모이기에 힘쓰게 합니다. 또한 85명의 일꾼을 중심으로 흠뻑이던 전도하는 일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체를 세우며 서로 사랑과 섬김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교구 가족들의 헌신과 열망 앞에 환경, 거리, 시간 등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약 때문에 더욱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며 주님의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요1부 예배와 영성훈련 시간에는 일꾼들이 기쁜 마음으로 모여 즐거운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습니다. 교육관 501호실에서의 주일 교구모임은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은혜가 충만하며, 환자와 연약한 성도의 소신을 나누며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어 주님 안에서 한 지체를 확인합니다. 요즈음에는 8월 5일 드림 교구찬양을 준비하면서 주님 안에서 한가족으로 묶인 모습을 보여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단독 세대, 고·대·청년에 해당하는 성도들을 심방한 뒤 교구모임에 초청하여 사랑의 교제를 통해 그들이 혼자자 아남을 느끼게 하고 있으며, 더 많은 단독 세대 성도들이 주님께 나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1교구 성도들로만 구성된 5개 팀과 4개의 협력교구 팀으로 구성된 단가전교사들이 언어훈련, 영성훈련, 팀훈련에 더욱 열심을 다 하기를 기도합니다. 총력 교회주변 전도, 1인 1명 전도, 구역별 1명 이상 전도를 위해 노방전도, 축조전도, 친인척 전도가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자신을 부인하고 제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교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게 이르지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집이라”(고후 12:9)



박덕향장로, 11교구장

* 처음에는 의무감에서 선교를 준비했다. 그러나 주님은 완악한 나에게 회개 기회를 주셨고, 선교지에서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해 주셨다. 우둔하고 부족한 입술이었지만 복음의 통로가 되어 어린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미 주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셨고, 순종만 하면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심을 깨달았다. (강영자 권사)

* 공원에서 전도했다. 세 명의 아이들이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여 다가가 말을 건네며 전도지를 읽어 보라고 했다. 함께 찬양을 부르자 몇몇의 아이들이 다가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 순간만은 외국인이라는 느낌보다 모두가 중국 백성이 된 기분이었다. 주님의 사랑에는 감히 따라갈 수 없지만 이 영혼들을 사랑한다.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기도한다. (박경숙 권사)

* 할머니 한 분이 홀로 앉아 계시기에 다가가 복음을 전했다. 할머니는 “에, 예”라고 하면서 나의 손을 따듬으며 일어나 애원하는 몸짓으로 나의 손을 꼭 잡았다. 그 할머니는 소경이었다. 할머니는 나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고, 더 많은 복음을 들으려 했다. 할머니와 기도한 뒤 작별했다. 지금도 그 할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이 할머니에게도 복음을 듣지 못한 눈은 소경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길 기도한다. (남세운 권사)

* 전도지를 받아 읽고서 가방에 소중하게 넣는 그들의 순수한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 이곳을 매우 사랑하고 계심을 느꼈다. 우리의 전도지를 받은 그 한 심령 심령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늘 계시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다. (박미자 권사)

* 한 중증 장애인의 휠체어가 내 옆에 와 있었다. 그냥 스쳐버리고 싶었다. 학생들과 찬양만 하고 싶은 나의 생각을 버리고 그분께 다가가라고 성령님께서 강하게

눈물의 사역



24, 16교구 연합팀

주장하셨다. 그의 결으로 다가가 복음을 전하자 고개로, 몸짓으로 감사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그를 붙잡고 기도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이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우리 교회의 정신지체 장애우를 위한 부서인 사람부처럼 그가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붙잡고 마음을 마음껏 듣고 신앙 생활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유재천 권사)

* 건강이 악화되어 함께 가는 팀원들에게 피해를 줄 것 같아 처음엔 선교 가기를 주저하였다. 지난 2월에는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생겨 입원하는 등 상황이 너무도 좋지 않았다. 그러나 이처럼 병약한 나를 주님은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셨고,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지금 나는 다시 무릎을 꿇었다. “저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또 나아가겠습니다.” (신희용 집사)

*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 내 자신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고 앞날을 예측하며 달력 세상사의 고민도 선교 준비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함을 선교를 다녀올 때마다 깨닫는다. 현지인들은 대체로 호의적이지만 가끔 냉정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의 계획은 놀랍기만 하다. 이따금 눈에 띄는 이단의 세력에도 더욱 선교의 필요성을 실감하며,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주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 예수님께 감사드리다. (안도용 집사)

* 도시를 중심으로 외곽에 저층 아파트가 형성되어 있었고 그곳을 벗어나면 농촌 지역이었다. 아파트촌에서 노방전도를 했으나 의외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적었다. 완강히 거부하는 정교회 신자들도 있었다. 비록 준비한 대로 진행되는 양이었지만, 매순간 기도하며 도우시는 성령을 따라 십자가만을 전할 수 있었다. (박재현 안수집사)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7월 16일(월)~7월 24일(화)	1·2교구 대학부·티고연합	김신국

단기선교팀을 위한 선교특별세례기도회

- 목적: 선교팀들이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주님의 보호와 은사를 구하며 어떤 핍박과 고난이 오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이 충만한 중언이 되도록 간구하기 위함
- 대상: 선교위원회 발원 및 기도동자, 모든 성도
- 세례: 56명 (7.20, 48명-19명/7.27, 7명-27명/8.3, 6명-10명)
- 기간: 7.23.(월)~8.18.(토), 4주
- 일시: 매주 화요일-토요일, 오전 5시 40분-6시(세례기도회 후)(월요일은 단기선교회 회의 및 기도회로 대체)
- 장소: 배대나눔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19개 팀)

기 간	팀	팀 장	기 간	팀	팀 장	기 간	팀	팀 장	기 간	팀	팀 장
7월 23일(월)~7월 31일(화)	13교구	조홍연	7월 25일(수)~8월 2일(목)	2·1·10·대학부 연합	최계열	7월 27일(금)~8월 3일(금)	7·8교구 연합	박용기			
7월 23일(월)~7월 31일(화)	23·2·6·17·18·24교구·고등부 연합	노은영	7월 25일(수)~8월 2일(목)	21·3교구 연합	유병수	7월 27일(금)~8월 3일(금)	8·7·23교구 연합	정병준			
7월 23일(월)~7월 31일(화)	4·5·14교구·대학부 연합	정태동	7월 26일(목)~8월 2일(목)	9·7·21·23·24교구 연합	조영구	7월 27일(금)~8월 4일(토)	10·9교구 연합	김해길			
7월 24일(화)~8월 2일(목)	12·11교구 연합	이인용	7월 26일(목)~8월 2일(목)	12·2·10·11교구 연합	김명성	7월 27일(금)~8월 4일(토)	17교구	남중호			
7월 25일(수)~8월 2일(목)	1·2·3교구·중등부 대학부 연합	윤선한	7월 26일(목)~8월 3일(금)	6·17교구·대학부 연합	김영주	7월 27일(금)~8월 4일(토)	할렐루야 천양대②	강임구			
7월 25일(수)~8월 2일(목)	18·16·19교구 대학부 연합	김홍열	7월 27일(금)~8월 3일(금)	6교구·대학·청년부·청년부·티고연합	김현철	7월 28일(토)~8월 4일(토)	아편 천양대	이정태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27개 팀)

기 간	팀	팀 장	기 간	팀	팀 장	기 간	팀	팀 장	기 간	팀	팀 장
7월 30일(월)~8월 4일(토)	1·2·8교구·중등부 연합	양현원	7월 30일(월)~8월 7일(화)	14·2·15교구·티고연합	이희우	7월 31일(화)~8월 7일(화)	초등부 교사	박광식	8월 1일(수)~8월 9일(목)	18·2·3·19교구 티고연합	김성현
7월 30일(월)~8월 4일(토)	14·10·13교구·대학부 연합	김중훈	7월 30일(월)~8월 7일(화)	21·20교구	박영근	7월 31일(화)~8월 8일(수)	16·7·14·24교구 연합	박찬석	8월 1일(수)~8월 9일(목)	20·21·24교구	박종욱
7월 30일(월)~8월 4일(토)	14·7·20·24교구 고등부 연합	채홍표	7월 30일(월)~8월 7일(화)	22·20교구	천준봉	7월 31일(화)~8월 8일(수)	5·4·10·24교구 청년부 연합	김성호	8월 1일(수)~8월 9일(목)	임마누엘 천양대	임찬식
7월 30일(월)~8월 4일(토)	2·12·19·20교구 중등부 연합	이보신	7월 30일(월)~8월 7일(화)	사랑부 교사	박민호	7월 31일(화)~8월 8일(수)	22·18·21교구 연합	김옥희	8월 2일(목)~8월 10일(목)	14·15·18·24교구·대학부 연합	권오준
7월 30일(월)~8월 4일(토)	22·10·24교구 중등부·대학부·티고연합	윤인재	7월 30일(월)~8월 7일(화)	2·10·12·21교구 대학부 연합	홍순길	8월 1일(수)~8월 9일(목)	8교구·중등부 연합	윤병식	8월 3일(금)~8월 10일(목)	10·2·11·12·20교구 대학부 연합	김중성
7월 30일(월)~8월 6일(일)	20·4·12교구·중등부 연합	강석하	7월 30일(월)~8월 7일(화)	충현복지단	최상기	8월 1일(수)~8월 9일(목)	13교구	정운환	8월 3일(금)~8월 11일(토)	15·20교구·25부 대학부·청년부 연합	최민석
			7월 30일(월)~8월 7일(화)	23교구·티고연합	유재훈	8월 1일(수)~8월 9일(목)	18·19·20·21교구 티고연합	윤해군	8월 3일(금)~8월 11일(토)	22·20교구	김성수

간증과 나눔

복음의 잔치 2007년 여름성경학교

※ 믿음의 벼룩

아론은 처음으로 아바, 엄마와 함께 여름성경학교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모님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신지 목장껏 찬양을 부르고 한 손으로는 무릎을 치며 예배에 깊이 빠져서 댕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며 흐트려하시겠습니까? 육신은 미약하나 그의 영혼을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아버지 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라" 하십니다. 그것을 아는지 아론은 교회 만들기 수수광 벼룩을 다 손에 쥐며 거룩한 목심을 부리네요.

엄마가 그렇듯 아론도 이 특별한 여름성경학교를 기억하겠죠? 아바, 엄마와 함께 드린 말씀, 찬양, 기도 이 예배가 아론이 조금씩 조금씩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가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벼룩" 중의 든든한 하나이었음을 훗날 알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가운데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박경희 집사(전원엄마, 열아홉)

※ 첫 경험, 성경학교

승민이는 유아부에 등록한 자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성경학교의 첫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으로도 못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가요 하나님 나라, 거둔다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승민이가 예수님을 조금 더 알아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예수님을 감사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코너 수업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기에 충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찬양 안에, 말씀 안에, 기도 가운데 우리 승민이와 유아부의 모든 친구들이 천국일꾼으로 믿음에 서서 굳건하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 나가는 아름다운 아이들로 성장할지 소망합니다.

조유리 성도(이승민엄마, 유아부)

※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야 한단다!

"순종아, 예수님이 누구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예요."
"무슨 일을 하셨?"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다가 삼일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 "우리 죄 때문이에요." 아직은 어리지만, 순종이는 복음을 깨닫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물어보던 끝날 대답한다. 언젠가 순종이가 친구에게 우리 집 자동차가 좋은 거라고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꾀꾀 놀라 순종이 손을 꼭 잡고 "순종아, 우리는 아무 것도 자랑하면 안돼!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야 한단다. 알겠니?" 그 이후로 몇 번 더 말해주니 자랑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여름 성경학교를 다녀와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 되었으니 감도를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되자고 했다. 또 직접 체험한 선생님과의 세족식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섬김의 모습에 대해 얘기하며 아직은 깊이 깨닫지 못해도 어린 영혼을 인도하시기를 기도했다. 가끔씩 순종이가 고집을 부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과 사탄이 주는 마음이 항상 싸우고 있으며, 예수님의 도우심을 통해 사탄과 싸워 이겨야함을 얘기하면 "알겠어요."라고 대답한다. 날마다 죽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으니 주님께서 주신 순종이를 믿음으로 양육하며, 순종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며 전하며 살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권정옥 집사(서순종엄마, 유치부)

※ 예수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이전에 있었던 4월 5일 동안의 체험학습으로 무척 피곤해서 처음에는 성경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제 마음 속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라"는 주제로 성경말씀을 배우고 찬송하게 되곤했습니다. 저는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습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십자가 위에 거룩한 예배를 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눔과 복음 전파를 행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들고서 제가 교회를 위해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말씀 외에도 성경 동영상과 미니 올림픽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예수님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영접하고 믿을 수 있는 시간 되어서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저에게 예수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박정은(초등부)

※ 오직 감사밖에 없었다

교사로 봉사하면서 여러 차례 맞이하게 되는 성경학교인지라 처음과 달리 나의 마음은 많이 무뎠져 있었다. 주님은 그런 나를 릴레이 금식기도와 성경학교를 위한 교사 기도회를 통해 기도로 무장시키셨다. 또한 전화심방을 통하여 아이들의 참사를 간관하게 하시며 나를 사용하셨다. 그러나 성경학교가 다가올수록 주님이 하실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한 것과 해야 할 것에 더 초점이 맞춰지고 있었다. 성경학교 전날 어둑어둑한 하늘이 종일 빗줄기를 쏟아 내리자 내 마음은 걱정과 근심으로 쉽게 변해버렸다. 결국 성경학교의 참 주관자이신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다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성경학교 당일, 주님의 은총으로 밤새 내리던 빗줄기가 잦아들고 하늘과 땅이 빗을 발할 때에 나는 그 앞에서 온전히 겸손해 질 수밖에 없었다. 날씨와 상관없이 주께서 부르신 아이들은 천국잔치로 풍성하게 나왔었다. 오직 감사밖에 없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라"(딤후 2:47)는 말씀 아래 나아온 아이들은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음식을 나누고 땀을 흘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십자가길과 사랑됨으로 나누어 했던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아이들은 말씀을 깨달았다. 이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을 배우는 시간에 적극적으로 임하던 아이들의 우렁찬 함성과 응원이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과연 주님께서 모든 환경과 순서를 주관하시고 우리 모두의 기도와 믿으로 주의 일에 동참하게 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만 영광 받으신 하루가 되었음을 믿는다. 함께 한 아이들과 참석하지 못한 아이들 모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울 귀한 천국일꾼으로 자라나길 기도한다.

김은경(교사, 유년부)

※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주님! 지금 내리는 이 비처럼 내일 성경학교에 오는 아이들에게 성령의 비를 흠뻑 내려주세요." 성경학교 전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이 되는 듯 엄마가 졸얼거려며 기도하셨다. '난 영화를 보러가고 싶는데...' 시큰둥한 마음으로 성경학교에 갔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라" 이 포어를 보고 난 속으로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세우? 난 절대 못하는 일이지...'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나를 깨닫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말씀이라는 터전을 세우는 거구나!' 그 말씀 위에서 성령한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에게 예수님을 자랑하며 자주 얘기하는 거...'

주일마다 차 안에서 장난치지 말고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흥!' 했던게 생각이 나서 부끄러웠고, 아침마다 찬송가 크게 불러놓고 깨우는 엄마가 미웠던 것도 생각이 나 부끄러웠고,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꼭 읽으라는 엄마 말씀에 혼날까봐 성경을 펴놓고 앉아서 읽는 시분만 했던 생각이 나 부끄러웠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아끼 돼지 삼형제 이야기에 질료로 아무렇게나 집을 지어 누대에걸 당하는 것 번째 돼지처럼 내 마음 속에 지은 교회가 질료로 지은 그런 집인 것 같았다. 성경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매일 성경말씀을 읽을꺼라고 엄마께 말씀드렸다. 이제는 말씀이 없는 질료로 지은 교회가 아니라, 말씀 위에 튼튼한 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민석희(소년부)

수화 합법 ⑥ 주 기도문 2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1. 이름이



2. 거룩히



3. 여김을



4. 받으시오며



5. 나라이



6. 임하옵시며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라

교회학교와 교구는 하나입니다!

교회학교를 품어 안은 25개 교구가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교회학교와 교구 간에 긴밀한 협조가 절실합니다. 우선 교회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부장과 교역자를 비롯하여 담임교사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학생의 영혼을 책임지는 마음으로 하나되어야 합니다. 교회학교가 전담하던 학생이 교구로 편입되었다고 해서 교회학교 학생의 양육 책임이 모두 교구로 옮겨진 것은 아닙니다. 교회학교에서는 더욱더 열심을 품고 학생을 돌보아 십자가를 전하는 천국일꾼이 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효율적인 심방을 해야 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심방의 위기'의 활용도가 높아져야 합니다. 학생의 영적인 상태는 누구보다 교회학교의 교역자와 담임교사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교회학교에서 먼저 장기 결석자와 잦은 결석자 등 교회학교 출석률이 저조한 학생들의 영혼을 깨우는 실제적인 심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방 결과를 토대로 교회학교에서 학생관리 방안을 모색한 뒤 교구에 심방 의뢰를 요청해야 합니다. 교회학교에서는 부모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혼자서 교회학교에 출석하는 학생들(단독 세대)과 새가족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교회학교와 교구의 부흥을 위한 귀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학교는 그들이 부서에 정착하도록 새가족반에서 최선을 다해 양육하여 등반시킨 뒤, 교구로 행정자료를 넘겨 실질적인 관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교구에서의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동안 교구 심방을 하면서 가족 전체를 심방하고 관리해 오긴 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구 식구의 자녀들에게까지 관심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미 교구에 소속된 가족이니만큼 나이에 관계없이 성인 심방을 하듯 만남을 가지면 자녀의 편에서도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교회의 소속감이나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마 18:5) 교회학교는 말할 것도 없지만 교구에서도 우리 교회에 속한 자녀를 돌볼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학교의 학생관리를 교사의 몫으로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함께 힘을 다하여 천국보다 귀한 영혼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어린 영혼들이 이 세대를 본받거나 실족하지 않고 천국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기도하며 양육해야 합니다. 십자가로 하나되어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재영(목사, 제1교구위원장 지도)

*현재 수화성결공부(6월 24일~8월 12일, 매주일 에버다부실)가 진행 중이니, 관심을 성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



예수 십자가에 올린 피로써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을 해 온 지 만 11년이 되었습니다. 음악 전공자는 아니지만 음악적인 능력이 전공자에 뒤지지 않는다고 교만했습니다. 내가 가진 음악적 기교로 찬양대에서 기거하곤 하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찬양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주님은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저의 교만을 깨뜨리셨습니다. 저의 능력이 아닌 십자가만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찬양을 드릴 때마다 잘한다는 자부심이 아닌, 죄인이 흘리는 눈물을 주셨습니다. 최근 새벽기도회 후에 오르간을 통해 은은히 울려 퍼지던 찬송가 193장 <예수 십자가에 올린 피로써>를 들으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올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주여 십자가의 보혈을 참 의지하게 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닦기 원합니다. 나를 부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다시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세상의 정욕과 사랑을 벗어버리고 나의 몸을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죄에 타락위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회개 씻으라.” 나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의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바울과 같이 내가 죽는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박성곤(집사, 할렐루야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는 주일3부(오전 11시) 예배를 섬기는 찬양대이다.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285	최경순	17	장년3부	김옥자(17)
1286	서선숙	2	장년2부	
1287	김기연	18	장년2부	권현주(21)
1288	이명철	10	장년2부	윤수일(1)
1289	김옥자	10	장년1부	윤수일(1)
1290	고돈일	10		윤수일(1)
1291	김영진	10	장년3부	전은희(1)
1292	문재순	10	장년3부	전은희(1)
1293	양현숙	3	장년2부	
1294	이미경	13	장년1부	박신정(3)
1295	오정현	14	장년1부	이미숙(6)
1296	이명현	3	중등2부	김민재(1)
1297	홍래	25	외선부	최규재(2)
1298	레그재미	25	외선부	장종숙(21)
1299	강기재	1	대학부	곽성조(8)
1300	김성기	10	청년1부	김학근(10)
1301	미약파트	25	외선부	장종숙(21)
1302	이소영	6	장년2부	허준희(6)
1303	안 정	6	대학부	김지현(16)

*종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 회 소 식

모임

1. 권사회 전체 모임
일 시 : 29일(오늘), 오후 3시
장 소 : 강림교회
2. 전도위원회 지혜원 월례회
일 시 : 29일(오늘), 오후 3시 10분
장 소 : 1교회: 제1교육관 40호
2교회: 제1교육관 40호
3교회: 제1교육관 40호
4교회: 제1교육관 41호

별세

1. 박학자 성도(별건대 집사의

모임, 박학자 집사의 시모, 22교구 권초3주) / 19일 별세, 21일 장례

2. 이윤구 부교장(이희영 집사의 부친, 양재본 집사의 장인, 21교구 작전주) / 22일 별세, 27일 장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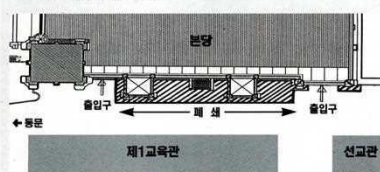
3. 양백호 성도(사순제 성도의 부친, 사해원 성도의 모친, 8교구 권주1구역) / 23일 별세, 25일 장례

4. 김용진 성도(백학성 집사의 남편, 10교구 면목2구역) / 24일 별세, 26일 장례

본당 외벽색재 보수공사를 위한 안전 협조

본당 외벽색재 보수공사중이오니 출입 시 안전사고를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본당 통풍덕지(교육관)와 본당 사이 내방 통로의 출입을 금합니다.
2. 본당 통풍덕지 부부 출입문을 제한함으로써 이동하기가 불편합니다.(출입문을 부착한 안내문 확인)
3. 통폐기간 : 2007년 10월 말까지



2007년 여름 성경학교 수료현황

부서	일시	장소	부서	일시	장소
총회1부	8.10(금), 11(토)	충현기도원	총회3부	8.17(금), 18(토)	충현기도원

8월 주일 및 수요일예 기도담당

월	일	주일예배 (점례)					수요일예배 (권사)	
		I	II	III	IV	V	I	II
8	5	박상대	김종선	김영달	이달욱	김영은	류기명	권정화
	12	원옥철	임무현	정창수	이계인	정창원	김영주	김영숙
	19	윤석민	정선현	최화중	유상대	남옥환	남희	박복순
	26	김연근	정경길	임복섭	박덕양	김규식	장승규	한예원

이반 주 새벽기도회 담당

	7/30 (월)	7/31 (화)	8/1 (수)	8/2 (목)	8/3 (금)	8/4 (토)	8/5 (주일)
성교자/기다성	유재진/이종석	정종선/김정복	전정원/김정복	박정원/정철성	김한수/정종훈	양태선/강명비	전성원/한성민
성교 본 문	참 30:1-9	참 30:10-20	참 30:1-9	참 31:1-9	참 31:10-31	전 1:11-11	전 1:12-18

예배담당 안내 (8/1~8/5)

날짜	예배	설교	사회	찬양
8/1	수요1	신자가 알아야 할 것 (벧후 3:18) 김성관 목사	임현덕 이경원	나의 생명의 피신주 (호산나 찬양대)
8/1	수요2	나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요 2:1-11) 최성득 목사	유현철 임정숙	하루는 말하나 주의 영광 (신로양 찬양대)
8/3	금요일	김성관 목사	박정원	예루살렘 찬양대 / 천막중주 / 소프라노 주조인
8/5	주일1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출 6:2-9) 유성태 목사	원완수 박상대	[예배 전 찬양]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외 / 모든 화의열 (만수영 찬양교회) 내 기도하는 그 시편의 / 앞의 임의(만수영 찬양교회) 아 하나님께 은혜로라 / 바나나인 임의(바나나 찬양교회)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외 / 소프라노 김진미(백영 찬양대 찬양교회)
8/5	주일2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출 6:2-9) 임현덕 목사	김영숙 김종선	
8/5	주일3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출 6:2-9) 김성관 목사	이계인 김종선	
8/5	주일4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출 6:2-9) 이정진 목사	최정철 이단욱	
8/5	주일5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출 6:2-9) 유성태 목사	유현철 김영은	
8/5	주일찬양	사도 요한의 충고 (요일 2:28) 김성관 목사	이재영 류기명	금관중주 / 이반 찬양대 / 11교구

예배 및 집회 안내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III 오전 11:00	본당
	(수화, 외국어 통역특별 예배)	
	IV 오후 3:00	본당
주일잔잔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 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30	본당
금요일장집회	저녁 7:30	본당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본당

기도원 집회 안내 (☎ 031-766-5425)

집회	시간	차량
최초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요양집회	저녁 11:00	요양관리원 주차장 앞 출발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8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4부 예배는 스페인어, 중국어, 필리핀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통역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b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구분	시간	장소
영 아 부	I 오전 9:00	제1교육관 110호
	II 오전 11:00	
유 아 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1호
유 자 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7호
유 년 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307호
초 등 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407호
소 년 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507호
중 등 1부	오전 9:00	제1교육관 301호
중 등 2부	오전 9:00	제1교육관 401호
중 등 3부	오전 9:00	제1교육관 501호
고 등 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 학 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청 년 1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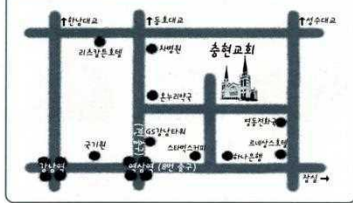
구분	시간	장소
청 년 2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층
장년 1부	오후 12:30	제2교육관 507호
장년 2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307호
장년 3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407호
소 망 부	오후 12:15	다 할 리 홀
사 랑 부	오전 11:00	복지관 지하1층
예배 다 부	오전 9:00(하순) 오후 1:00(상순)	제2교육관 1층
탁 아 부	(화) 오전 9:30(토) 6:00 (금) 저녁 7:00(약) 9:30	전선관 1층
세계각양부	오후 12:15	대 나 홀
충현이민이집	주간교육	제1교육관 107호
정신장애이교	주간교육	충현 복지관
국제화국인교	오전 11:00	아 변 홀

7월 충현 기도원의 창

- ① "서로 사랑하자"라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충현의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 ② 25개 교구와 22개 교회학교를 통하여 충현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 ③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시므로써 십자가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영육의 건강함을 주소서.
- ④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훈련이 성령님의 뜻대로 진행되며,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⑤ 1:1:1 전도와 메릴 둘째 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있는 총회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여섯달 일대의 모든 영혼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게 하소서.
- ⑥ 2007년 여름 계절학교를 통하여 교회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시며, 예수살렘 찬양대를 통해서 금요찬양집회가 보혈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 ⑦ 피택받은 일꾼들이 모든 교육을 통하여 십자가의 일꾼이 되게 하시며 매추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거듭나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중언 되게 하소서.
- ⑧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동산·복지)과 충현복지관이 복음으로 견고교회를 하고, 현재 추진중인 양로원, 수양관, 남급시설 및 본당 외벽색재 보수공사가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24시간 연속 기도소: 본당 113호(112호 옆)

교회 오시는 길



심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시무로

김은호	노영현	이병학	이 훈	남순자
제1교구위원장	시무로	시무로	시무로	시무로
김종구	최부길	이창호	차산준	김광남
충현1부담당	충현1부담당	충현1부담당	충현1부담당	충현1부담당
이종석	임무현	전종훈	전종훈	이정주
충현2부담당	충현2부담당	충현2부담당	충현2부담당	충현2부담당
김진우	한승진	김영주	김영주	원종철
충현3부담당	충현3부담당	충현3부담당	충현3부담당	충현3부담당
이형수	김도환	최화민	최화민	최화민
충현4부담당	충현4부담당	충현4부담당	충현4부담당	충현4부담당
이계인	박덕양	이대식	박종국	권명옥
충현5부담당	충현5부담당	충현5부담당	충현5부담당	충현5부담당
조종환	배승진	김영달	이신호	최지환
제1교구위원장	제1교구위원장	제1교구위원장	제1교구위원장	제1교구위원장
노영현	차정길	신상수	고재호	
충현1부담당	충현1부담당	충현1부담당	충현1부담당	
김정현	김영은	이단욱	김순곤	
충현2부담당	충현2부담당	충현2부담당	충현2부담당	
한철주	유기만	정선현	안석현	김근원
충현3부담당	충현3부담당	충현3부담당	충현3부담당	충현3부담당
김장국	이창식	김종철	전학대	
충현4부담당	충현4부담당	충현4부담당	충현4부담당	
구재환	송두진	최화중	신진기	유상대
충현5부담당	충현5부담당	충현5부담당	충현5부담당	충현5부담당
박상대	김규식	신광철	정창수	임복섭
충현6부담당	충현6부담당	충현6부담당	충현6부담당	충현6부담당
이상식	오도호	양기수	김대식	
충현7부담당	충현7부담당	충현7부담당	충현7부담당	

■ 부목사

박기현	류병희	여국근	안창덕	정종호
충현1부담당	충현1부담당	충현1부담당	충현1부담당	충현1부담당
김기현	강지훈	임현덕	이희석	최종현
충현2부담당	충현2부담당	충현2부담당	충현2부담당	충현2부담당
하종철	안정호	정종선	이재용	이성진
충현3부담당	충현3부담당	충현3부담당	충현3부담당	충현3부담당
최정규	이재영	이정훈	김민희	윤수인
충현4부담당	충현4부담당	충현4부담당	충현4부담당	충현4부담당
황진석	유재진	장명주	전성원	김정현
충현5부담당	충현5부담당	충현5부담당	충현5부담당	충현5부담당
이종진	양태선	유상대	유현철	탁정원
충현6부담당	충현6부담당	충현6부담당	충현6부담당	충현6부담당
김한수	최정철	최정길		
충현7부담당	충현7부담당	충현7부담당		

■ 전도사

윤선자	김연희	홍순애	이국주	김달자
충현1부담당	충현1부담당	충현1부담당	충현1부담당	충현1부담당
안태순	김정현	장정희	최복심	전은희
충현2부담당	충현2부담당	충현2부담당	충현2부담당	충현2부담당
김정자	김영희	이복순	유진희	한성민
충현3부담당	충현3부담당	충현3부담당	충현3부담당	충현3부담당
임태주	장정희	유미자	이복순	강종호
충현4부담당	충현4부담당	충현4부담당	충현4부담당	충현4부담당
전영희	이혜숙			
충현5부담당	충현5부담당			

■ 찬양감독

김정현	전영희	전영희	전영희
충현1부담당	충현1부담당	충현1부담당	충현1부담당
김정현	전영희	전영희	전영희
충현2부담당	충현2부담당	충현2부담당	충현2부담당
김정현	전영희	전영희	전영희
충현3부담당	충현3부담당	충현3부담당	충현3부담당
김정현	전영희	전영희	전영희
충현4부담당	충현4부담당	충현4부담당	충현4부담당